올 여름 휴가, 부처님 품서 자유 꿈꾸다

피서 대신 마음 피스 찾아 사찰로
단기출가 나선 이들 대자유인 경험
봉녕사, 열흘간 2기 여성출가학교
조계사 청년 16명 출가행자 거듭나


조계사 경내에서 무명초라 불리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삭발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임은호 · 김내영 기자

바야흐로 휴가철인 요즘. 집에서 푹 쉴 수도, 어딘가로 훌쩍 떠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올 여름 휴가는 부처님 품에서 보내겠다고 서원한 이들이 있다. 바로 단기출가에 나선 이들이다. 피서 대신 마음의 피스(평화)를 택한 이들은 번뇌와 망상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속세의 인연과 잡념을 끊은 채 산문을 활짝 연 사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7월 26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제2기 여성출가학교' 고불식을 봉행하고, 대자유인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 열린 봉녕사 제1기 여성출가학교에서는 실제 출가를 결심한 입교자가 나와 출가자 감소 시대에 대안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에 봉녕사는 다시 한 번의 한국 전통 승가 생활을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2기는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해 입교할 수 있도록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19세부터 61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입교생은 '천진향' '진여화' '지혜륜' '반야심' '자성지' 등 새로운 불명을 받고 8월 4일까지 부처님 법에 의지해 수행정진했다. △발우공양습의·도량안내(7월 27일) △부처님 생애·불교상담·불교요가(7월 28일) △계율강의·행다선명상(7월 29일) △일보일배·주지스님 법문·삼귀의 오계 수계식·소모둠 차담(7월 30일) △기초교리·붓다볼 명상(7월 31일) △자비수참 기도·좌선실수(8월 1일) △선재 스님 사찰음식 특강·서로 부처님되기·마음 나누기(8월 2일) △발우용품과 수행용품 정리와 대청소, 대중참회 자자(8월 3일) △회향식(8월 4일)을 통해 비구니 승가의 일상적인 수행과 생활 전반을 체험했다.

조계사에서는 청년회원 16명이 여름방학과 휴가기간을 활용, 단기출가 생활을 해 화제를 모았다.

조계사는 7월 31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계사 청년·대학생 단기출가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에서 조계사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녀 각각 8명 총 16명이 출가행자로 거듭났다. 이들은 8월 4일까지 5일 동안 조계사에서 생활하며 예불, 교육, 정진, 운력 등을 수행했다.

앞서 조계사는 4월 29일~5월 4일, 5월 5일~10일 두차례에 걸쳐 '청년·대학생 단기출가'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봉축 기간 첫걸음을 뗀 발심출가 프로그램은 교계 안팎으로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며 조계사의 미래세대 전법 및 포교 활성화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쟁에 지치고 불확실한 미래에 흔들리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대안을 제시, 그 결과 단기간의 출가행사 생활 체험이 최근 정식 출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여름방학과 휴가기간을 활용해 동참한 이번 참가자들은 출가 기간 최선을 다해 수행에 임했다.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내는 '무명초 자르기'를 시작으로 개인물품 봉안, 행자복 착복, 대승원력 10계 절하기 및 발원문 낭독 등을 통해 출가로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사는 발심 단기출가를 통해 청년·대학생 전법을 일회성 구호로 그치지 않고 향후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대학생이 가진 삶의 고민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비롯한 불교 의식과 문화를 미래세대에 전파, 청년 수행자 유입 및 출가자 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8월 14~19일 추가 개최될 예정으로 현재 참가 인원 접수 중이다.

4대 종교인 '만남중창단' 뉴욕 유엔서 평화 노래한다

세계 최초 4대 종교 중창단
성관 스님 등 종교인 구성돼
8월 23~30일 美뉴욕 방문해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등 공연


만남중창단서 활동 중인 4대 종교인들. 사진 왼쪽부터 하성용 신부, 박세웅 교무, 성진 스님, 김진 목사. 8월 23~30일 미국 뉴욕에서 평화를 주제로 공연과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사진=불광미디어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성직자로 구성된 세계 최초 4대 종교인 중창단 '만남중창단'이 미국 뉴욕에서 평화를 노래한다.

(사)종교인평화봉사단(이사장 김진)은 "오는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뉴욕에서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특별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8월 23~30일까지 진행될 '만남중창단' 뉴욕 활동은 먼저 ICCGC(Interfaith Coalition Conference for Global Citizenship)와 CoNGO(NGO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가 공동주최하는 국제콘퍼런스 참가로 시작된다.

지난 1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BTS에 이어 유엔에 가서 공연하는 최초의 종교인이 되는 발칙한 꿈을 갖고 있다"고 밝힌 만남중창단의 소원도 이번 방미활동 중 이뤄진다. 유엔처치센터(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에 모인 세계종교지도자들 앞에서 노래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만남중창단은 '행복의 참 주인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한마음선원 뉴욕지원(플러싱)과 보리사(뉴저지)에서 공연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만남중창단의 방미활동 하이라이트는 뉴욕 '워싱턴 스퀘어 파크'와 '센트럴 파크'에서 이뤄지는 '평화의 버스킹(Peace Busking)'이다. 뉴욕 한복판에서 펼쳐질 세계 최초 4대 종교 성직자 중창단의 버스킹은 세계인들에게 진정한 종교 화합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만남중창단은 세계 갈등의 상징인 9.11 메모리얼 뮤지엄을 방문해 '9분 11초(9min. & 11sec.)' 평화 침묵 명상의 시간도 갖는다.

신중일 기자

대불련, '함께하는 행복' 주제로 영캠프

8월 2~4일 낙산사 일대서
제15회 영부디스트캠프 회향

한국불교 미래의 동량인 대학생 불자들이 제15회 영부디스트 캠프를 원만 회향했다.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주현우)는 8월 2~4일, 강원 양양 낙산사 일대에서 '나를 찾는 기쁨, 함께하는 행복'을 주제로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단합하고 교류하는 제15회 'KBUF Young Buddhist Camp(영부디스트 캠프, 이하 영캠프)'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캠프에는 대학생 청년 불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캠프 첫날인 2일,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 인월료 강당에서 입재식이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주현우 중앙회장은 "영캠프가 진행되는 모든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알아가며 그렇게 알게 된 것들을 주변 도반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오늘 이 자리가 무수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대학생 청년들이 고민을 나누고 응원하며 함께 행복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입재식에 이어 본격적인 영캠프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법등별 시간 △청춘강연 △청춘토크파티 △스님과의 대화 △낙산사 사찰 미션 순례 △낙산 해수욕장 물놀이 △일출명상 △대불련의 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불자들은 여름날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이번 영캠프에 참가한 신재영(강원대) 학생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참가다. 자주 오는 낙산사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재밌게 즐길 수 있어 행복했다"며 "영캠프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재 수습기자

재난 마라톤…"5km 달리고 대비력 키우자"

더프라미스, 온오프라인 챌린지
유익하게 재난 대비 방법 익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8월 13일 '재난 마라톤'을 시작한다. 재난 마라톤은 재난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익히는 온오프라인 챌린지다. 기후위기 등 재난 일상화 시대 속 재미있고 유익하게 재난 대비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재난 마라톤은 5km 코스로, 재난 상황에 대비해 물리적 대비 방법과 상대적으로 놓치기 쉬운 심리적 대비 방법에 대해 다룬다.

5주간 생존 배낭을 꾸리는 '생존배낭 언박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과 색깔을 찾는 '감정 컬러 플레이리스트', 스마트폰으로 방재 훈련 방법을 익히는 '구해줘! 스마트폰!', 마음 안정을 위한 움직임을 따라하는 '눕방: 회복의 움직임', 싱잉볼 명상을 통해 긴장감을 내려놓는 '싱야(夜)'로 구성됐다. 참여자가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한 줄 칭찬 릴레이'와 시중에 판매되는 비상식량을 시식하며 활동을 마무리하는 '비상식량 시식회'도 준비됐다. 참가비는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다.

재난 마라톤 참여자 전원에게는 'Hold on tight' 운동화 끈이, 완주자에게는 디지털 완주증, 스마트폰 밴드 홀더, 반창고 세트, 더프라미스 티셔츠(3명 추첨), 템플스테이 1일권(5명 추첨)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내영 기자

한일 청소년, 제13회 불교 교류 활동 성료

8월 1~5일, 조계사, 석불사 등서
템플스테이·법회·인경 의식 경험
한국불교 전통문화 체험 시간도



한일 양국 청소년들이 각국 문화를 교류하고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원명 스님, 이하 파라미타)는 8월 1~5일 서울 조계사, 석불사 일대에서 '제13회 한·일 청소년 불교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교류는 파라미타와 일본 아시아불교도협회(이사장 카이 시겐 스님)가 공동주최하고, 조계종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교류 활동은 4박 5일간 한국 사찰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템플스테이와 한국 가정에서 양국 청소년들의 우애와 추억을 쌓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8월 1일 석불사에서 입재식을 봉행한 일본 지도자 및 청소년들은 8월 4일 조계사로 이동해, 조계사 중·고등학생회 법우들과 함께 일요법회에 참석했다. 경내에서 인경(印經)을 들고 화엄일승법계도를 도는 의식에 동참해 한국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류단은 8월 5일 오전 10시에 조계사에서 회향식을 끝으로 4박 5일간의 교류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민재 수습기자

문화사업단, 사찰음식 강좌 수강생 모집

향적세계 · 동화사 · 봉녕사
3곳에서 초급과정 개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2024년 3차 사찰음식 정규강좌 초급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와 대구 동화사, 수원 봉녕사 3곳에서 주 1회 3시간씩 총 12주간 수업이 진행된다. 강좌당 정원은 24명이다.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에서는 3개 초급과정이 마련된다. 중제 스님이 강의하는 초급과정은 매주 금요일 오전반(10시~13시)에 운영된다. 수강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성견 스님이 강사로 나선 목요일 반은 오전반(10시~13시), 오후반(14시~17시)이 개설된다. 수강 기간은 9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다.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2024년 교무금 납부자에 한함)는 향적세계 수강료 10%를 할인·환급받을 수 있다. 수강 문의는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02-2655-2776)로 하면 된다.

대구 동화사는 2개의 초급과정을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반(10시~13시)과 오후반(13시 30분~17시 30분)에는 동희 스님이 강의를 맡는다. 수강 기간은 8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동화사 사찰음식체험관(053-980-7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 봉녕사 초급과정은 여거 스님이 강의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반(10시~13시)이 운영되며, 9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봉녕사에서는 중급과정도 마련된다. 중급과정은 9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3시에 개설된다. 다만 중급과정은 초급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한정해 수강할 수 있다. 문의는 금비라 사찰음식교육관(031-252-4128)으로 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불교환경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연다

9월 7일 하남 상불사 경내서
23년 회고 · 신규 회원 환영 등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불교환경연대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9월 7일 하남 상불사(주지 동효 스님)에서 '불교환경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을 연다. '생명의 꽃 피어라'가 주제인 이번 기념식은 불교환경연대의 23년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회원 확대 초록릴레이를 통해 새롭게 맞이한 신규 회원들을 환영하는 자리다.

본식 1부에서는 불교환경연대의 2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회고 및 비전 공유'가 이뤄진다. 또한 회원 시상식을 통해 10년 이상 장기회원, 신규 회원을 가장 많이 유치한 회원, 적극적으로 환경연대 활동에 참여한 회원 등에게 감사를 전한다. 불교환경연대 홍보대사 요술당나귀 라마의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2부에는 기념식 참가자 모두에게 녹색사찰 상불사에서 직접 기른 작물로 만든 사찰음식을 대접한다.

불교환경연대 창립 23주년 기념 '생명의 꽃 피어라'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9월 6일까지 구글폼(https://bit.ly/생명의꽃피어라)으로 접수받는다.

김가령 수습기자

불교음악원, 신작찬불가 작곡부문 공모

8월 28일까지 등기 · 이메일 접수

조계종이 찬불가 보급과 불교음악 대중화를 위해 신작 찬불가 작곡부문 공모를 실시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음악원이 주관하는 '불기2568(2024)년 제11회 신작 찬불가 작곡부문 공모'는 8월 28일 오후 5시까지 접수받는다.

작곡부문 공모는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정 가사(제11회 신작 찬불가 작사부문 공모 당선작)로 지원 가능하다.

응모신청서, 작곡계획서, 악보5부(이메일 접수는 PDF파일 형식), 사진 1매, 음원파일 USB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우체국 등기나 이메일(cobm007@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류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10월 중 진행될 불교음악상 및 신작 찬불가 시상식에서 초연된다.

김내영 기자